

21 벌거벗은 임금님

CD2-09

한스 안데르센

¹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 새 옷을 좋아해 날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임금님의 새 옷을 볼 때면 신하들은 옆에서 “와, 정말 눈이 부십니다.” “이 얼마나 멋지신지요.” “임금님처럼 멋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아침을 떨었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에게 칭찬의 말을 늘어놓는 신하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² 어느 날, 수상한 재봉사 둘이 임금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신기한 옷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옷은 특별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납니까? 임금님은 아주

裸の王様

ハンス・アンデルセン

Hans Andersen (P.091)。本作品はアンデルセンが、スペインの寓話集に収録された内容を基に翻案し、1837年に発表した童話で、『子どものための童話集』に収録。

¹ 昔、ある国に一人の王がいました。王は新しい服が好きで、毎日新しい服に着替えていました。派手で美しい王の新しい服を見るといつも、臣下たちは横で「わあ、本当にまぶしいです」「なんかっこいひのぢやうぢやう」「王様のようにっこいひ人はこの世界に誰もいないぢやうぢやう」と言いながらごまをすりました。王は自分に称賛の言葉を並べる臣下たちをいつも満足げに眺めていました。

² ある日、2人の怪しい仕立て職人が王の前に現れました。今まで見たことのない不思議な服を作ってあげるということでした。その上、その服は特別で、愚かな人の目には見えないというではありませんか。王はとても

임금님: 王様. 임금(王)に-님が付いた形

¹ 화려하다: 華麗だ, 派手だ 신하: 臣下 부시다: まぶしい. 눈이 부시다의形で使う. 1 単語になった능부시다もよく使われる 아침을 떨다 (阿諛--): ごまをする, おべっかを
使う, こびへつらう. 아침을 하다とも言う 칭찬: 称賛 늘어놓다: ざらりと並べる, (言葉
を)並べ立てる 흐뭇하다: 満足げだ -곤 하다: ~したりする, よく~する. 繰り返す行
習慣を表す

² 수상하다 (殊常--): 怪しい 재봉사 (裁縫師): 仕立て職人, 裁縫職人, 縫い師 신기
하다 (神奇--): 不思議だ, 珍しい, 面白い 어리석다: 愚かだ, 間抜けだ, ばかだ

기뻐했습니다. 작업실을 만들어 주고, 치수를 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속히 옷이 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속키]

³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눈을 씻고 보아도 신하들에게는 옷은커녕 옷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옷감을 이리 들고 저리 들면서 자르고 꿰매는 모습이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신하들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가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⁴ 옷이 얼마나 되었느냐고 임금이 물으면 신하들은 하나같이 “아주 훌륭한 옷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는 처음 보았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둘러대기 일쑤였습니다. 임금은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되었느냐고]

[하]

[나가치]

[그러]

[케]

[거짓말]

喜びました。作業室を作ってやり、寸法を測らせました。そして、一日も早く服が仕立て上がるのを待ちました。

³ところが、どういうわけか、目を凝らして見ても臣下たちには服どころか服の生地すら見えませんでした。見えもしない生地をあちこち運び、切ったり縫ったりする姿がおかしいばかりでした。臣下は皆、お互いの様子をさぐっていました。見えないと言えば、愚かで間抜けな人になるのは目に見えていました。

⁴服がどれくらいできているかと王に聞かれたときには、臣下たちは一様に「とても立派な服になっていっています」「あんなに美しい模様は初めて見ました」と常にうそで言い逃れていました。王は期待に胸が膨らみました。

치수 (-数): 寸法 재다: (長さや重さなどを)はかる 하루속히 (--速-): 一日も早く

³ 어찌된 일인지: どういうわけか, どういうことなのか ~은커녕: ~はおろか, ~どころか
옷감: 生地 ~조차: ~すら, ~さえ, ~までも 이리: こちらへ, こっちへ. よく저리(あちらへ, あっちへ)と併せて「あちこち~する」のような意味で使う -고: A하고 B하다という形で、「AしたりBしたりする」という行為の反復を表す 꿰매다: 縫う -기만 하다: ~であるばかりだ, ただただ~だ 멍청하다: 間抜けだ 뻔하다: 明らかだ

⁴ 무늬: 模様, 柄 둘러대다: うまく言い繕う, (お金を)やりくりする -기 일쑤다: ~するのが常だ, よく~している 부풀다: (胸, 希望, 期待などが)膨らむ

- 5 드디어 새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재봉사들이 임금에게 옷을 입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눈에도 역시 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크게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척 미소를 지으며 팔을 내밀어 옷을 입는 시늉을 했습니다. 옷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 6 임금은 특별한 새 옷을 입은 기념으로 거리 행진을 나섰습니^다. 어깨를 펴고 배를 내민 채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백성들 눈에도 옷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때 환호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외쳤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행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 5 ついに新しい服が完成しました。仕立て屋が王に服を着てみるよう勧めました。しかし、王の目にもやはり服は見えませんでした。王はとても戸惑いましたが顔に出しません。まるで目に見えるふりをしてほほ笑みを浮かべながら腕を出して服を着るそぶりをしました。服に対する称賛も忘れませんでした。
- 6 王は、特別な新しい服を着た記念にパレードに出ました。胸を張り、おなかを突き出したまま、堂々と道を歩きました。民の目にも服は見えませんでした。皆が歓声を上げました。その時、歓声を上げる民の間で1人の子どもがはっきりと叫びました。「王様は素っ裸だ!」すると、他の人たちも叫びました。「王様は素っ裸だ!」その時になってやっと、あちらこちらで笑い始めました。王の顔は赤くなりました。とても恥ずかしかったですが、行進を止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 5 당황하다 (唐慌→): 慌てる, うろたえる, 戸惑う 내색하다 (-色-): 思っていることを顔に出す -는 척: (まるで)~しているかのように 미소: 微笑, ほほ笑み 내밀다: 差し出す, 突き出す, 押し出す 시늉: まね, そぶり
- 6 거리 행진: 街頭パレード - 채: ~したまま 백성 (百姓): 民, 民衆 환호하다 (歡呼-): 歓声を上げる 또렷하다: 明らかな, はっきりしている -었다: ~した, ~している. -았-は、過去の動作だけでなく、現在の状態も表す。ここでは「服を全て脱いだ状態である」という意味なので、「素っ裸だ、丸裸だ」と訳すことができる